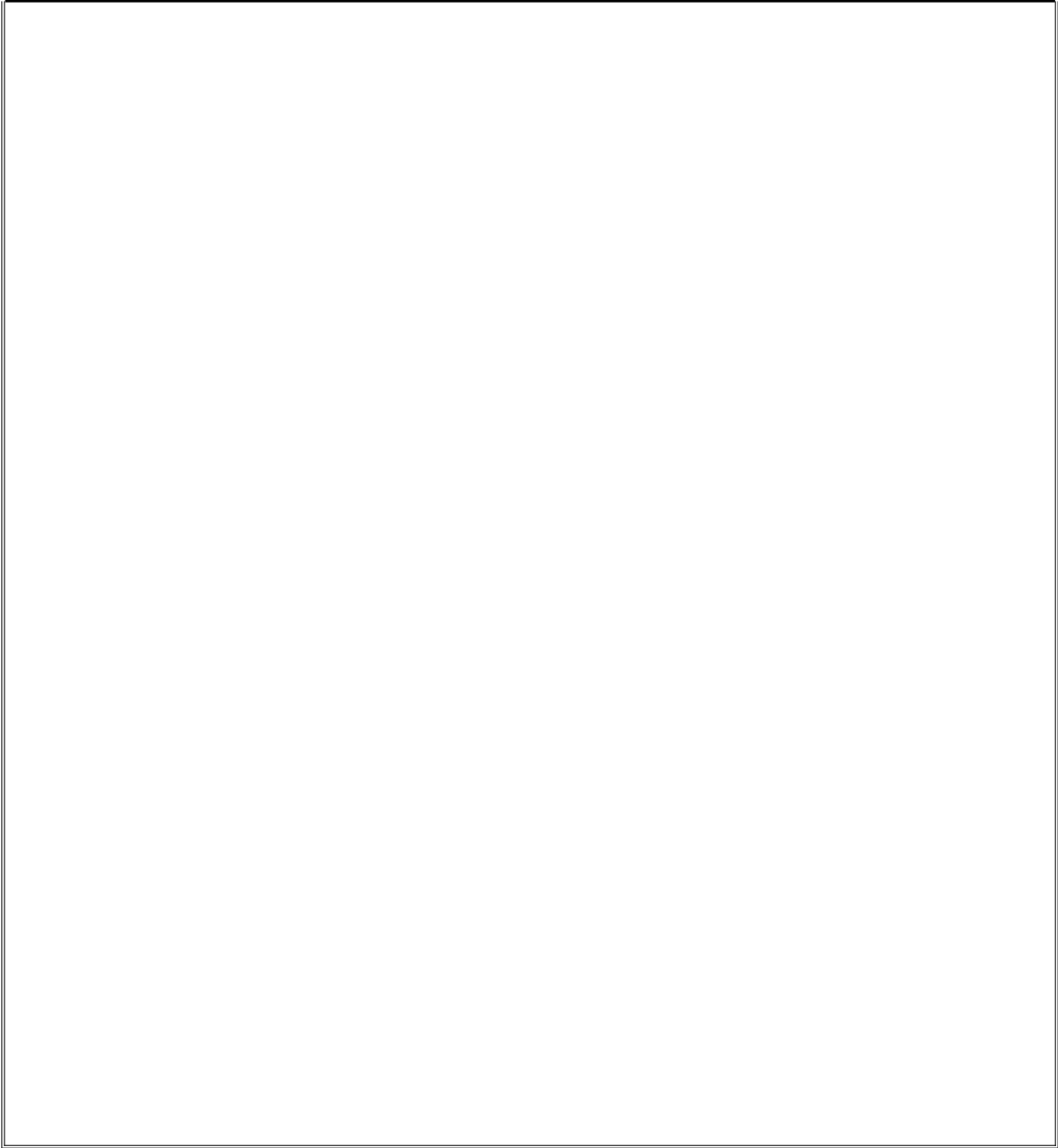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만들기 귀공자 인성 활동 체험 보고서

“나는 이렇게 실천하고 발전하고 있다”

작 성 자	강민석	학 번 (소 속)	10701
<p>원광고에 입학한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나갔다. 모든 것이 어색했던 3월과는 다르게 이번 4월은 제법 학교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아침에 귀공자 노트를 작성 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다.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쯤 나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다. 중간고사라는 시련이었다. 중간고사는 귀공자노트니 인성교육이니 하는 것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마음공부고 뭐고 지금 1차 고사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귀공자노트도 아침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작성한 날도 있었다. 마음공부를 대충 하다 보니 점점 시험공부도 집중이 안 되었고 독감까지 겹쳐 결국 나는 시험공부를 상당히 불성실하게 했다. 그 결과는 성적으로 이어져 참담한 결과를 내고 말았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온 원인분석을 하게되었다. ‘어째서 이 점수가 나왔나’부터 ‘왜 공부를 대충 하였는가’ 까지 이어진 나의 생각은 결국 내가 내 정신,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공부라는 본분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가는대로 행동하였고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마음공부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간완성을 이끄는 핵심적 공부라고 강조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 니라”라고 하셨다. 마음공부를 바르게 하여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면 지금 같은 후회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4월에 얻은 교훈은 일반적인 공부에 집중한답시고 마음공부를 놓칠게 아니라 중요하고 급한 일이 많을수록 더욱 마음공부에 정진하여야 겠다. 라는 것이다. 5월부터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더 마음공부에 힘쓰는 귀공자가 되어야겠다,</p>			



하나-학생은 유·무념 대조로 바로 서고, 둘-교사는 내가 먼저 바로 선다.